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호응' 안정적 상수도 공급 '탄력'

무주군, 12월까지 실버음악놀이지도사 양성 과정 등 11개 강좌 진행

무주군이 진행하는 군민 대상 세대·계층별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9월부터 '실버음악놀이지도사 양성 과정'을 비롯해 '컴퓨터 ITQ 자격 과정'과 '드로잉', '힐링 타로 상담'과 '기후미식 세계', 'Talk 특! 영어 회화' 등 11개 강좌가 진행 중이다. 12월까지 무주군은 각 프로그램 운영은 물론, 과정별 수강생 학습관리와 만족도 및 수요 조사 진행 등 내실을 기할 방침이다.

주민 이 모 씨(57세, 무주읍)는 "상반기에 이어 드로잉 수업을 받는데 막연하게 좋아하던 그림을 시작해서 체계적으로 배우고 있다는 성취감과 보람이 일상의 활력이 되고 있다"라며 "평생교육원을 통해 뭔가를 끊임없이 배울 수 있다는 게 너무 좋고 무엇보다 취미는 물론, 일과 생활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 다양하게 도전해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좋다"라고 전했다.

평생교육원 프로그램 수강은 1인 2개 강좌까지 가능하며, 관련 내용은 평생교육원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문의 전화 063-320-2254/2259)

한편, 무주군은 무주읍을 비롯한 6개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도 모두배움터를 운영 중(해당 읍면 주민 대상)으로, 무주읍에서는 오는 27일까지 순가



무주군이 진행하는 군민 대상 세대·계층별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사진은 기후미식 세계 강좌 모습)

락장단(금요일, 17:30~19:30, 예체문화관 신바람무예관)을 비롯해 바이올린(금요일, 19:00~22:00, 읍사무소 2층)과 오일파스텔화 과정(수요일, 18:30~20:30, 읍사무소)의 수강생을 모집(무주읍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방문·접수)한다.

무주군청 인구활력과 인재육성팀 배점옥 팀장은 "무주군은 2020년 교육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이후 관련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학습, 강연 프로그램을 마련·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시대 흐름은 물론, 군민 연령과 계층,

요구를 반영해 무주가 작지만 강한, 무엇보다도 지속 가능한 평생학습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에서는 교통과 여행, 교육, 의학, 클래식(공연)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 초청 강연도 진행 중이다. 10월 24일에는 서울아산병원 정희원 교수를 초빙해 "느리게 나이 드는 습관, 또래보다 10년 젊게 사는 법"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며 12월 5일에는 피아니스트 안인모 씨와 함께하는 콘서트가 마련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2025년도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공모 선정

무주군이 2025년도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환경부 공모에 최종 선정돼 총사업비 382억 원(국비 191억, 도비 38억, 군비 153억)을 확보했다.

이를 기반으로 무주군은 2029년까지 무주읍 당산리 일원 무주정수장 취수시설(9,460㎥/일)과 정수시설(8,600㎥/일), 도수관로(L=2.8km) 등을 재건설할 계획으로 깨끗하고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에 기여할 전망이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이번 공모 선정은 전북특별자치도와 환경청, 환경부, 그리고 지역정착권과의 긴밀한 공조 속에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기술 진단과 정밀 안전 점검, 무주군 수도 기본계획 변경(정수장 이전) 등 발 빠르게 대응한 결과"라며 "1977년에 운영

을 시작한 무주정수장은 운영 연수를 초과하면서 시설이 노후화되고 이로 인한 유지관리의 한계와 정수 능력 저하, 수질 안전이 불안 한 상태에서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추진이 절실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물 복지 실현으로 군민건강 증진과 생활편의 실현 모두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정수장 정비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에서 140개 사업 대상지가 출사표를 던졌던 이번 공모에서 환경부는 관로 노후도와 누수 저감효과,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노후 상수도 정비 신규사업 대상지 47곳을 선정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노후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부과

진안군은 관내 노후경유차(배출가스 4·5등급) 2,149대에 대하여 2024년 2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6,600만 원을 부과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근거하여 환경오염 원인에 대해 환경개선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해 자발적인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매년 3월, 9월 연 2회 후납제 방식으로 부과된다. 부과대상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저공해차량 인정이 되지 않은 2012년 7월 1일 이전에 생산된 차량이다.

또한 저공해자동차, 유로 5~6등급 경유차는 부과가 면제되며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는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된다.

이번에 부과된 2기분(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산정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해당 기간 동안 차량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된다. 기간 내 소유권 변경, 말소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 고지서가 발송되며, 후납방식에 따라 소유권 변경, 말소 이후에도 고지서가 1~2회 더 부과될 수 있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 월요일까지이며, 은행(창구 및 입출금기),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납부기한 이후에는 차량 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진안군청 환경과 환경정책팀(063-430-2333)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산서면, 21일 산서희망무지개축제 개최

장수군 산서면이 오는 21일 산서면 일원에서 주민들의 화합을 위한 '산서희망무지개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한 '산서희망무지개축제'는 산서면에서 생산되는 대표적인 농산물을 무지개색에 비유한 축제로 프로그램 기획부터 운영까지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이뤄진다.

"향가로 건강을"이라는 부제로 꾸며진 이번 축제는 양파음식체험, 양파 전시, 외국음식체험 등 마을공동체부스가 운영되며 주민 동아리 공연, 먹거리장터 등 산서면의 특색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고동금 축제추진위원장은 "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뿐 아니라 방문객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들도 많이 준비했다"며 "우리 지역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축제장을 찾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길환 시장은 "올해로 5회차를 맞은 산서희망무지개축제는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축제"라며 "주민들과 함께 열심히 준비한 만큼 사고 없이 안전하게 축제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역 소식 통

장수군, 하반기 체납 지방세 일제정리 추진

장수군은 9월부터 11월까지 2개월간 '하반기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지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군에 따르면 8월말 기준 체납액은 지방세 633백만원 규모이며 이번 일제정리기간 동안 체납액의 54%(인 347백만원) 징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군은 해당 기간에 군청과 읍·면의 모든 인력을 동원해 납부 독려 및 체납자 실태조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등 현장 중심의 체납처분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압류재산 공개처분, 가액 수색 및 금융재산(급여, 가산자산 등) 압류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황우상 재무과장은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 징수유예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며 "지주재산 확보 및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는 집중관리 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진안군은 가을철 임산물 채취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13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군은 단속반을 조직하고, 각 읍·면에 산림보호지원단 27명을 배치해 임산물 불법 채취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이나 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불법 산지 전용, 무단 벌채, 임산 통제구역 출입,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화기를 소지하고 임산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추석 전후(9월 13일~9월 19일)에는 임산물 불법 채취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임산물 불법 채취와 같은 불법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적발 시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수경재배 전환으로 상추 연간 수확량 3배 증가

진안군, 농작업 환경개선 수경재배 전환사업 성과

진안군은 올해 추진한 '농작업 환경개선 수경재배 전환사업'으로 상추 생산성이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기존 하우스 내 흙에서 재배하는 방식을 허리높이의 인공베드를 설치해 수경재배로 전환한 방식으로,

양액을 통해 작물의 뿌리에 영양분을 자동으로 분무하는 시스템이다.

이 기술을 통하면 기존 상추 하우스 토양 연작장애를 개선하고 정밀한 영양분 공급이 가능해 작물의 생육 및 수량이 향상되며, 고설 방식이라 허리를 굽히지 않고 작업이 가능해 농업인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

다만 수경재배 전환은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고, 하우스 환경관리 및 양액기 사용요령 등을 따로 습득해야 하며, 펌프설비 등의 문제 발생 시 급속한 피해를 받기 쉽다는 단점이 있다.

고경식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가 고령화에 따른 노동환경 개선 및 생력화 사업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미래 농업에 발맞춰 스마트한 최신 영농기술을 발굴하고,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